

## ◆(몽골통신)

## 지난 여름 날의 肖像



몽골 고원에 가을이 와도, 남 고비(고비)는 '사막'이란 뜻임)를 다녀 온 한여름 여행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사막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여름의 기억이 모래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것 같다. 남 고비의 관문 울링암을 떠나 세 시간가량 북동쪽으로 향했다. 머나먼 지평선으로 이어진 사막 땅에 돌아 있는 풀들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다. 홍고로엘스(Hongorels, '황갈색 사막'의 뜻)가까이 다다랐을 때 성큼성큼 걸으며 풀밭의 먹이를 뜯고 있는 낙타 무리를 만났다. 신기한 쟁쟁난타였다. 몽골의 다섯 가지은 양, 염소, 소, 말 그리고 낙타다. 이 낙타가 나 곁에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녀석들의 모습이 키 큰 점잖은 신사를 닮았다. 게르(몽골 이동식 집)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새벽 5시. 나와 같이 간 일행은 일출 마지 준비를 했다. 멀리 희뿌연 구름바다 위로 아침 해의 붉은 기운이 서서히 나타난다. 남 고비에 처음 밭을 밟은 일행에게는 감동, 그 자체다. 끊없는 사막 풍경은 장관이다. 서기 어린 기운이 우릴 감싸고 있다. 일행이 내려온 평지 사막에는 여기저기에 빨간 열매가 열린 사막 식물이 우리를 반기고 있다. 사막에서 어떻게 생�력을 부지하는 것일까. 자연이 우리에게 숙제를 냈다. 아직도 일행의 얼굴이 부스스하다. 아침 기운이 여름인데도 추울 정도다. 아침 식사를 마친 일행은 근처 낙타 체험하는 계르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 10여 마리의 낙타가 일정한 장소에 매어 있거나 서 있고, 별자 여타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 근무하고 있다.

**OSBS A&T** | 2016.09.20~2016.10.05  
"SBS사우회 창립 10주년 축하드립니다!"

**TV를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  
**SBS A&T**

**미술** 무대디자인, 의상, 분장, 조명, 그리고 AR, VR, 특수효과 CG 등 비주얼 디자인으로 창의적인 영상 미술을 제공 합니다.

**영상** 드라마, 교육, 예능, 영화, CF 등으로 제작 영상과 SBS 보도 영상 취재, NLE 편집 등 영상 전문가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방송기술 분야 전문 엔지니어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UHD 방송장비 운영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사업** 방송 미술, 영상, 기술 영역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시스템 구축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고객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대디자인 / 의상 / 분장 / 조명 / AR / VR / 비주얼디자인 / 야외촬영 / 특수촬영 / 해외위성 송수신 / 방송변환 / 중계차 임대 / HD 방송시스템 구축 / IT 네트워크 / 전시 이벤트 사업 / 방송시설 SI사업

## 사 | 우 | 동 | 정

**신영균(영예고문)** 지난 8월11일 일 신영균예술문화재단에서 선정한 예술인 자녀 13명에게 장학금 2천4백만원을 전달했고, 이재단이 그동안 예술인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4억 7천 6백만원에 이른다.

**정승화(편성)** 바둑동호회에 프로기사와 겨루는다면 기대를 위해 바둑판 4셋트를 기증했다. 정사우는 바둑동호회 창립시에도 바둑판 5셋트를 기증한 바 있다.

**신언훈(제작)** 극지탐험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듀서인 신사우는 최근 히말라야 등반 활동을 끝내고 편집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SB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엄광석(보도)** 지난 9월21일부터 27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엄사우는 이번 명사초청 전시회에 '정선의 겨울'을 출품했다.

사우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박희재(기술)** 퇴직 후 고창에서 귀농생활 3년 째 첫 가을 수확을 했다. 아로니아를 풍성하게 수확한 박사우는 사우회

10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가을 한강에서

이날 10주년 기념식에는 본사를 대표해 최영범 경영지원 본부장이 참석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 기능과 수익성 강화 등 성장 전략을 펴 있다는 최근의 본사 소식을 전하면서 늘 친정을 걱정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사우들은 한강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성산대교의 뱃길을 따라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박영호, 최상담 사우의 섹스폰 연주를 즐겼다. 참가 사우들은 단체 사진 촬영후 사우회에서 마련 한 기념품을 전달 받고 12월 송년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편 SBS 윤세영 회장은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한수 잘 배웠습니다'**  
프로바둑 명인 서봉수 초청 대국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기사 초청 대국다면기 대국이 지난 9월23일 바둑동호회 주최로 사우회 특설대국실에서 열렸다. 이날 프로기사 1명이 사우 5명과 겨루는 2개팀 다변기 대국은 상급자팀으로 출전한 김수운, 변건, 엄광석, 김홍덕, 박광호 사우는 서봉수 명인과 주일정, 정영덕, 김재백, 이두표, 강동하 사우로 구성된 중급자팀은 송예수 아마 6단과 각각 겨루어졌다. 마치 알파고에 도전하듯 진지한 자세로 대국에 임한 사우들은 바둑 명인을 통해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날 특설 대국실에는 많은 사우들이 흐름의 묵수를 관전했다. 대국이 끝난 후 서봉수 명인은 SBS 사우회 사우들의 힘이 넘치는 기력을 놀라워하며 기본기를 충실히 다듬는 게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총평으로 격려했다.

새 수첩은 새 인물로

사우회는 2017년 사우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 사우들의 변경된 신상정보와 새 인물 사진을 받고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 된 사우들은 10월 말까지 사우회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사우들의 사진은 대부분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새 인물 사진교체에 사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출범**

김세웅 사우 단장으로 선임

티브 아트뮤지엄을 통해 이 지역에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재능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의 뜻 깊은 의미를 새기며 출범한 재능봉사단 활동은 SBS 사우회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능봉사단으로 선정된 사우는 다음과 같다.

단장 김세웅(영화) 최낙현(교양) 정상일(예능) 채홍기(보도) 박동주(R) 김돈(문화) 박건삼, 장동우, 김병수, 현일범, 손석기(부회장단) 이해연(의사) 이관형(사무처장)

**10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가을 한강에서

이날 10주년 기념식에는 본사를 대표해 최영범 경영지원 본부장이 참석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 기능과 수익성 강화 등 성장 전략을 펴 있다는 최근의 본사 소식을 전하면서 늘 친정을 걱정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사우들은 한강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성산대교의 뱃길을 따라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박영호, 최상담 사우의 섹스폰 연주를 즐겼다. 참가 사우들은 단체 사진 촬영후 사우회에서 마련 한 기념품을 전달 받고 12월 송년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편 SBS 윤세영 회장은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한수 잘 배웠습니다'**  
프로바둑 명인 서봉수 초청 대국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기사 초청 대국다면기 대국이 지난 9월23일 바둑동호회 주최로 사우회 특설대국실에서 열렸다. 이날 프로기사 1명이 사우 5명과 겨루는 2개팀 다변기 대국은 상급자팀으로 출전한 김수운, 변건, 엄광석, 김홍덕, 박광호 사우는 서봉수 명인과 주일정, 정영덕, 김재백, 이두표, 강동하 사우로 구성된 중급자팀은 송예수 아마 6단과 각각 겨루어졌다. 마치 알파고에 도전하듯 진지한 자세로 대국에 임한 사우들은 바둑 명인을 통해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날 특설 대국실에는 많은 사우들이 흐름의 묵수를 관전했다. 대국이 끝난 후 서봉수 명인은 SBS 사우회 사우들의 힘이 넘치는 기력을 놀라워하며 기본기를 충실히 다듬는 게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총평으로 격려했다.

새 수첩은 새 인물로

사우회는 2017년 사우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 사우들의 변경된 신상정보와 새 인물 사진을 받고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 된 사우들은 10월 말까지 사우회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사우들의 사진은 대부분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새 인물 사진교체에 사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출범**

김세웅 사우 단장으로 선임

티브 아트뮤지엄을 통해 이 지역에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재능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의 뜻 깊은 의미를 새기며 출범한 재능봉사단 활동은 SBS 사우회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능봉사단으로 선정된 사우는 다음과 같다.

단장 김세웅(영화) 최낙현(교양) 정상일(예능) 채홍기(보도) 박동주(R) 김돈(문화) 박건삼, 장동우, 김병수, 현일범, 손석기(부회장단) 이해연(의사) 이관형(사무처장)

**10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가을 한강에서

이날 10주년 기념식에는 본사를 대표해 최영범 경영지원 본부장이 참석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 기능과 수익성 강화 등 성장 전략을 펴 있다는 최근의 본사 소식을 전하면서 늘 친정을 걱정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사우들은 한강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성산대교의 뱃길을 따라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박영호, 최상담 사우의 섹스폰 연주를 즐겼다. 참가 사우들은 단체 사진 촬영후 사우회에서 마련 한 기념품을 전달 받고 12월 송년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편 SBS 윤세영 회장은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한수 잘 배웠습니다'**  
프로바둑 명인 서봉수 초청 대국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기사 초청 대국다면기 대국이 지난 9월23일 바둑동호회 주최로 사우회 특설대국실에서 열렸다. 이날 프로기사 1명이 사우 5명과 겨루는 2개팀 다변기 대국은 상급자팀으로 출전한 김수운, 변건, 엄광석, 김홍덕, 박광호 사우는 서봉수 명인과 주일정, 정영덕, 김재백, 이두표, 강동하 사우로 구성된 중급자팀은 송예수 아마 6단과 각각 겨루어졌다. 마치 알파고에 도전하듯 진지한 자세로 대국에 임한 사우들은 바둑 명인을 통해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날 특설 대국실에는 많은 사우들이 흐름의 묵수를 관전했다. 대국이 끝난 후 서봉수 명인은 SBS 사우회 사우들의 힘이 넘치는 기력을 놀라워하며 기본기를 충실히 다듬는 게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총평으로 격려했다.

새 수첩은 새 인물로

사우회는 2017년 사우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 사우들의 변경된 신상정보와 새 인물 사진을 받고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 된 사우들은 10월 말까지 사우회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사우들의 사진은 대부분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새 인물 사진교체에 사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출범**

김세웅 사우 단장으로 선임

티브 아트뮤지엄을 통해 이 지역에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재능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의 뜻 깊은 의미를 새기며 출범한 재능봉사단 활동은 SBS 사우회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능봉사단으로 선정된 사우는 다음과 같다.

단장 김세웅(영화) 최낙현(교양) 정상일(예능) 채홍기(보도) 박동주(R) 김돈(문화) 박건삼, 장동우, 김병수, 현일범, 손석기(부회장단) 이해연(의사) 이관형(사무처장)

**10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가을 한강에서

이날 10주년 기념식에는 본사를 대표해 최영범 경영지원 본부장이 참석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 기능과 수익성 강화 등 성장 전략을 펴 있다는 최근의 본사 소식을 전하면서 늘 친정을 걱정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사우들은 한강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성산대교의 뱃길을 따라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박영호, 최상담 사우의 섹스폰 연주를 즐겼다. 참가 사우들은 단체 사진 촬영후 사우회에서 마련 한 기념품을 전달 받고 12월 송년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편 SBS 윤세영 회장은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한수 잘 배웠습니다'**  
프로바둑 명인 서봉수 초청 대국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기사 초청 대국다면기 대국이 지난 9월23일 바둑동호회 주최로 사우회 특설대국실에서 열렸다. 이날 프로기사 1명이 사우 5명과 겨루는 2개팀 다변기 대국은 상급자팀으로 출전한 김수운, 변건, 엄광석, 김홍덕, 박광호 사우는 서봉수 명인과 주일정, 정영덕, 김재백, 이두표, 강동하 사우로 구성된 중급자팀은 송예수 아마 6단과 각각 겨루어졌다. 마치 알파고에 도전하듯 진지한 자세로 대국에 임한 사우들은 바둑 명인을 통해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날 특설 대국실에는 많은 사우들이 흐름의 묵수를 관전했다. 대국이 끝난 후 서봉수 명인은 SBS 사우회 사우들의 힘이 넘치는 기력을 놀라워하며 기본기를 충실히 다듬는 게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총평으로 격려했다.

새 수첩은 새 인물로

사우회는 2017년 사우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 사우들의 변경된 신상정보와 새 인물 사진을 받고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 된 사우들은 10월 말까지 사우회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사우들의 사진은 대부분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새 인물 사진교체에 사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출범**

김세웅 사우 단장으로 선임

티브 아트뮤지엄을 통해 이 지역에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재능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의 뜻 깊은 의미를 새기며 출범한 재능봉사단 활동은 SBS 사우회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능봉사단으로 선정된 사우는 다음과 같다.

단장 김세웅(영화) 최낙현(교양) 정상일(예능) 채홍기(보도) 박동주(R) 김돈(문화) 박건삼, 장동우, 김병수, 현일범, 손석기(부회장단) 이해연(의사) 이관형(사무처장)

**10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가을 한강에서

이날 10주년 기념식에는 본사를 대표해 최영범 경영지원 본부장이 참석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 기능과 수익성 강화 등 성장 전략을 펴 있다는 최근의 본사 소식을 전하면서 늘 친정을 걱정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사우들은 한강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성산대교의 뱃길을 따라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박영호, 최상담 사우의 섹스폰 연주를 즐겼다. 참가 사우들은 단체 사진 촬영후 사우회에서 마련 한 기념품을 전달 받고 12월 송년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편 SBS 윤세영 회장은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한수 잘 배웠습니다'**  
프로바둑 명인 서봉수 초청 대국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기사 초청 대국다면기 대국이 지난 9월23일 바둑동호회 주최로 사우회 특설대국실에서 열렸다. 이날 프로기사 1명이 사우 5명과 겨루는 2개팀 다변기 대국은 상급자팀으로 출전한 김수운, 변건, 엄광석, 김홍덕, 박광호 사우는 서봉수 명인과 주일정, 정영덕, 김재백, 이두표, 강동하 사우로 구성된 중급자팀은 송예수 아마 6단과 각각 겨루어졌다. 마치 알파고에 도전하듯 진지한 자세로 대국에 임한 사우들은 바둑 명인을 통해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날 특설 대국실에는 많은 사우들이 흐름의 묵수를 관전했다. 대국이 끝난 후 서봉수 명인은 SBS 사우회 사우들의 힘이 넘치는 기력을 놀라워하며 기본기를 충실히 다듬는 게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총평으로 격려했다.

새 수첩은 새 인물로

사우회는 2017년 사우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 사우들의 변경된 신상정보와 새 인물 사진을 받고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 된 사우들은 10월 말까지 사우회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사우들의 사진은 대부분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새 인물 사진교체에 사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출범**

김세웅 사우 단장으로 선임

티브 아트뮤지엄을 통해 이 지역에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재능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의 뜻 깊은 의미를 새기며 출범한 재능봉사단 활동은 SBS 사우회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능봉사단으로 선정된 사우는 다음과 같다.

단장 김세웅(영화) 최낙현(교양) 정상일(예능) 채홍기(보도) 박동주(R) 김돈(문화) 박건삼, 장동우, 김병수, 현일범, 손석기(부회장단) 이해연(의사) 이관형(사무처장)

**10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가을 한강에서

이날 10주년 기념식에는 본사를 대표해 최영범 경영지원 본부장이 참석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 기능과 수익성 강화 등 성장 전략을 펴 있다는 최근의 본사 소식을 전하면서 늘 친정을 걱정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사우들은 한강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성산대교의 뱃길을 따라 강변 풍경을 바라보며 박영호, 최상담 사우의 섹스폰 연주를 즐겼다. 참가 사우들은 단체 사진 촬영후 사우회에서 마련 한 기념품을 전달 받고 12월 송년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편 SBS 윤세영 회장은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한수 잘 배웠습니다'**  
프로바둑 명인 서봉수 초청 대국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기사 초청 대국다면기 대국이 지난 9월23일 바둑동호회 주최로 사우회 특설대국실에서 열렸다. 이날 프로기사 1명이 사우 5명과 겨루는 2개팀 다변기 대국은 상급자팀으로 출전한 김수운, 변건, 엄광석, 김홍덕, 박광호 사우는 서봉수 명인과 주일정, 정영덕, 김재백, 이두표, 강동하 사우로 구성된 중급자팀은 송예수 아마 6단과 각각 겨루어졌다. 마치 알파고에 도전하듯 진지한 자세로 대국에 임한 사우들은 바둑 명인을 통해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날 특설 대국실에는 많은 사우들이 흐름의 묵수를 관전했다. 대국이 끝난 후 서봉수 명인은 SBS 사우회 사우들의 힘이 넘치는 기력을 놀라워하며 기본기를 충실히 다듬는 게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총평으로 격려했다.

새 수첩은 새 인물로

사우회는 2017년 사우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 사우들의 변경된 신상정보와 새 인물 사진을 받고 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 된 사우들은 10월 말까지 사우회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사우들의 사진은 대부분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새 인물 사진교체에 사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출범**

<p

## SBS 혁신적 조직 개편 '1등 방송' 향하여

SBS는 지난 8월 내부조직 혁신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소통과 협업 체계적인 의사결정, 민첩한 실행이 가능한 체제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실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미디어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되고 뉴미디어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보도시스템에 변화를 주었다. 또 제작부문에 의사결정 단계 측면과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인 집단적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 될 수 있

### ◆ 백두산 화보



### ◆〈백두산 가는길에〉

## 내 가슴 속에서 꺼낸 天地

글/고장석사우

왕복 2천 5백 Km의 대장정은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남짓 거리인 대련에서 시작된다. 단동을 거쳐 고구려의 옛 수도 집안을 지나 백두산을 오른 뒤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4박 5일간의 강행군이다. 대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단동으로 이동, 호텔에 여장을 풀 다음날 아침, 버스는 압록강 변을 따라 달렸다. 오른쪽은 북한 땅이다. 압록강의 크고 작은 섬들이 수면에 잠길 듯 차창으로 스친다. 조카의 손에 무참하게 처형된 장성백의 한이 서린 황금괭이 지나간다. 그리고 위화도다. 이성계의 회군으로 조선 개국의 단초가 된 역사의 현장이다. 만약 이성계가 최영의 뜻대로 압록강을 건너 유통 절벽에 나섰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만주 땅의 광활함을 말해 주는 듯 유효수 밭이 끊없이 펼쳐진다. '아! 여긴 이제 가는 길 같아!' 한 사우가 소리친다. 그랬다. 주변의 풍광이

앞에 펼쳐진다. 1,500년 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색채가 아름답다. 둘 가루를 칼아 물감을 만들고 그림위에 맷 데지 기름을 바랐다고 한다. 코앞에서 보는 고구려 벽화의 감동은 좋지만 벽화가 일까 마치 우리 시골을 찾는 느낌이다. 드디어 광개토대왕비 앞에 선다. 가벼운 전율을 느낀다. 드넓은 대륙을 호령했던 대왕의 기상을 우리 후손에게도 내려주시라 빌어 장수왕릉으로 향한다. 커다란 석자들을 펴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려 매우 강인한 느낌을 준다. 당태종이 몰고 왔던 백만 대군 앞에서도 눈 하나 끔찍 않던 대 고구려의 기개가 담겨있는 듯하다. 이곳 일대에는 7천여기의 고구려 고분이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인 오홈분 오피소도에서 고구려 벽화를 만난다. 묘 실의 네 벽을 가득 채운 가로 5미터 세로 4미터의 벽화, 가이드 유반장의 손전등이 비출 때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수령도에 사냥하는 고구려 무사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무용 도에선 우아한 자태의 무희들의 춤이 눈

천지를 끼어내 보고 있다. 조선과 중국으로 양분된 천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끄러워 보여주기 싫었던 것일까? 암록강 유람선에서 본 북한 동포들의 무표정과 초췌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고 고구려 박작성터에 호산장성을 급조해 만리 장성의 시작점이라고 우기는 중국 동북공정의 역사 왜곡에 분노했던 역사 기행은 여순에서 끝난다.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한 현장 여순 감옥을 숙연한 속에 살펴본 31명 사우들 머리 숙여 안중근의사의 흥상 앞에 참배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참배는 SBS 사우회 10주년 기념 여행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축하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SBS콘텐츠허브는 세계적인 콘텐츠 종합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유통 No.1 SBS 콘텐츠허브**

[www.sbs.co.kr](http://www.sbs.co.kr) / [www.sbscontentshub.co.kr](http://www.sbscontentshub.co.kr)



### 〈사우회 창립 10주년 특별대담 / SBS미디어그룹 윤세영 회장〉

## SBS 와 사우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자

▶ **사 회** = 매년 12월 SBS 사우회 송년 모임에 함께하시는 회장님을 볼 때 사우들이 이구동성으로 회장님은 세월이 비껴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변함없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요?

▶ **윤회장** = 짧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나름의 건강비결을 말씀 드린다면, 힘들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평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체운동, 근력운동, 유산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새벽에 가벼운 운동을 빼놓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동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품을 들이고 운동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릅니다. 쉽게 늙지 않고 활력도 생깁니다.

▶ **사 회** = SBS 사우회 설립을 추진하셨을 때 회장님께서 생각하신 사우회가 밀그림과 비교해 기대만큼 성장 했다고 보시는지요?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송환경이 변 해서 SBS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우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역경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SBS를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 SBS 사우회 설립을 추진하셨을 때 회장님께서 생각하신 사우회가 밀그림과 비교해 기대만큼 성장 했다고 보시는지요?

갖는 또 다른 즐거움일 것입니다. SBS 사우회는 '즐겁고 보람되게'라는 구호 아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동안 어느 사우회보다도 잘 돼 왔다고 들었습니다. SBS를 인연으로 엮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교제하며, 좋은 때나 힘들 때나 서로 도와가는 모습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사우회는 우리 구성원들의 추억이 깃든 동창회이자 쉼터입니다. 사우들이 정겹고 활발하게 교제

하고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윤회장** =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여성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노화에 따라 많은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얼마나 자신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질병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노년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부부가 늙어가는 서로를 애듯하게 배려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한 노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 못했던 사랑 표현도 아내에게 좀 하고, 서로 건강도챙기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동반자가 행복해야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에 무슨 목표나 할지 모르지만 인생 2막 혹은 3막을 보람 있게 살려면 작은 목표라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취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이루겠다,"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을 하겠다," "경제활동을 조금 더 해보겠다"와 같은 목표를 갖다 보면 그만큼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BS의 발전에 보탬이 될 만한 쓴소리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충고와 아이디어가 SBS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습니다. SBS와 사우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원합니다.

▶ **사 회** = 비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답/박동주 편집장



**'청년으로 성장한 사우회 자랑스럽다'**  
**'퇴직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  
**'SBS발전을 위해 쓴 소리도 아낌없이 해주길'**

▶ **윤회장** = 지금까지 우리 사우회는 퇴직 동료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여러 경조사에서 서로 협력하는 좋은 창구가 돼 왔습니다. 또 여유가 있을 때 만나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사우회 모임이

### ◆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 / MBC사우회 회장 이연현

## 더욱 빛나는 노년을 위하여

짧든 길든,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하감,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상당 기간 진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진통을 치유해주고 위무해 줄 상대로서 사우회 만한 조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시간에 허기며 치열하게 살아온 방송 현장. 그곳에서 활동하는 동안 선배, 후배, 동료로서 애환을 같이 했던 사이였기에 공유하는 추억도 많고 간직한 사연도 비슷하고, 그래서 더 우리의 노년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SBS사우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있는 곳, 그래서 우리에게 SBS사우회는 그리 낯선 동네가 아닙니다.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알뜰하게 사우회를 운영해 오신 역대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회기애에게 진행되고 있는 '3사 사우회 친선 바둑대회' 외에도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께리는 없는지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방송보다 건강이 더 관심사가 된 우리들의 노년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SBS사우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 경조사

#### 축하합니다.

김홍님 장녀(9/3)

송도균 장남(10/8)

신중섭 장남(10/15)

고희

이종수 박희재

이시권 우선균

#### 애도합니다.

박건삼 빙모상(6/28)

이영혜 도진상(7/28)

이혜연 시모상(8/7)

한민규 부진상(8/17)

김한중 부진상(8/23)

윤권중 부진상(9/2)

이동수 부진상(9/16)

### 〈긴급공지〉

경조사비 입금지를 찾습니다. 사우회에 경조사비를 전달하기 위해 입금한 사우들 중 본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입금한 사우로 인해 행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아래 해당시기에 입금하신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입금일자	금액	통장예보내용	입금경로
2016년 6월 29일 04:38분	100,000원	박건삼부조금	인터넷뱅킹
2016년 8월 10일 13:50분	100,000원	이영희부조금	인터넷뱅킹
2016년 8월 24일 22:41분	100,000원	김한중부조금	인터넷뱅킹
2016년 9월 2일 11:02분	30,000원	신XX조금	모바일뱅킹

### ◆ 회비내신분

#### 연회비(7월~9월)

김임순 소속자 천영일

### ◆ 회비안내

(증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30,000원 증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비 날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찬회비 1005-001-954097

### ◆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 / KBS 사우회장 전봉찬

## 10살의 나이는 가장 찬란한 봄

연연세세 그 어느 해도 의미 없는 해는 없겠지만 우리는 SBS사우회 창립 10주년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축하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10년의 연륜이 길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10살의 나이는 가장 찬란한 봄 날이자 도약과 역동을 시작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10년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어갈 10년의 명맥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출발선에 선 SBS사우회에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아울러 다양한 활동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방송3사 사

우회는 과거 협연시절 프로그램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회우들이 이제는 방송계 원로로 서로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이른바 '절친' 사이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시작한 3사 사우회 친선바둑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더해가고 있고 행사초청 등도 활발하여 앞으로 교류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단단하기가 금(金)과 같고 아름답기 난(蘭)과 같은 '금란지교(金蘭之交)'의 사귐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